

포퓰리즘 시대 시민교육의 방법론 : 경합적 교육론과 ‘공통 정서’의 함양*

김 현*

• 요 약 •

이 논문은 한국 포퓰리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포퓰리즘의 극단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교육론과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기능장애를 겪고 있으며, 그 증상은 포퓰리즘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 포퓰리즘의 극단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의 정서적 차원을 고려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대중의 정서를 ‘길들이기’ 위해 경합적 정서를 인정하면서도, 공통 정서의 함양을 도모하는 경합적 교육론을 제시한다. 또한, 이 접근방법에 따라 보이텔스바흐 수업연구회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논쟁 수업 모형과 저자가 이를 참고해서 대학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수업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주제어 : 포퓰리즘, 시민교육, 경합적 교육론, 공통 정서

I. 서론

이 논문은 한국 포퓰리즘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포퓰리즘이 극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방법과 구체적 수업 모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세기 중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하나의 유럽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

* 이 논문은 2022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용역보고서 “‘적대주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해법”에서 저자가 집필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의 지원을 수혜하였다.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주의라는 유령이”라고 선언했다면, 21세기 현재 전 세계는 포퓰리즘이라는 유령의 출몰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또한, 2024년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재부상했다는 사실은 포퓰리즘의 유행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포퓰리즘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이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는데, 그 대응 방안 중 하나가 시민교육이다. 포퓰리즘 발생의 원인과 대응은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포퓰리즘의 수요적 측면에 대한 대응은 학술적으로나 공적 영역에서 많이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많은 경우 포퓰리즘의 발생을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중심에 둔 엘리트 주도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포퓰리즘은 단순히 특정한 정치지도자 개인이나 포퓰리스트 정당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포퓰리스트적 태도를 가진 시민이 여러 사회경제적·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러한 태도가 활성화되는 것과 맞물린다.²⁾ 따라서 포퓰리즘의 대응을 위해선 수요 측면에 대한 대응도 모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민교육은 “민주적 신념을 강화하고 다원주의의 적실성을 설명함으로써 포퓰리즘적 태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³⁾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주된 가치를 가르치고 극단적 포퓰리즘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시민교육은 이미 기득권층을 불신하고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집단 사이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해외 학계의 포퓰리즘 관련 시민교육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는 정서이다.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에 대한 열광적 지지에 당혹한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대중의 정서에 관심을 기울였고,⁵⁾ 극단적 포퓰리즘의 ‘정서적 정치(affective politics)’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교육에 정서의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⁶⁾

1)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Popu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109.

2) *Ibid.*, pp.99-104.

3) *Ibid.*, p.112.

4) *Ibid.*, p.112.

5) Kinnvall, Catarina, 2018, “Ontological insecurities and postcolonial imaginaries: The emotional appeal of populism”, *Humanity & Society*, vol. 42, no. 4, 2018; Wahl-Jorgensen, Karin, “Media coverage of shifting emotional regimes: Donald Trump’s angry populism,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 40, no 5, 2018; Wodak, Ruth, *The politics of fear: What right-wing populist discourses mean*, London: Sage, 2015.

6) Mihai, Mihaela, “Theorizing Agonistic Emotions”, *Parallax*, vol. 20, no 2, 2014; Zembylas, Michalinos,

해외 학계의 이런 동향과 달리, 한국 학계는 포퓰리즘 관련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저조하다. 포퓰리즘 문제를 시민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윤정인(2017)이 한국 정당정치에서 포퓰리즘 양상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민교육을 제안했고,⁷⁾ 장원순(2018)이 시민교육 커리큘럼에 포퓰리즘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과 수업 모형을 제시했으며,⁸⁾ 그 연장선상에서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과 수업 내용을 검토한 박상영(2023)의 연구가 있다.⁹⁾ 한편, 포퓰리즘 관련 정서 문제를 다룬 연구로 한정하면 손준중(2019)의 연구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손준중(2019)의 연구의 경우, 무페(Chantal Mouffe)의 급진적 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방법에서 ‘민주적 열정’의 고양을 제안했다.¹⁰⁾ 하지만 그가 미하이(Mihai 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민주적 열정’은 이론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으며, 특히 ‘민주적 열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제시된 새로운 교육방법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모형 역시 검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정서 교육의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시민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서 교육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포퓰리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간단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포퓰리즘의 현황을 살펴본다(II장). 이를 통해 한국 포퓰리즘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진로는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포퓰리즘이 ‘길들여진’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정서 교육이 필요함을

“Political Emotions in the Classroom: How Affective Citizenship Education Illuminates the Debate Between Agonists and Deliberators”, *Democracy & Education*, vol. 26, no 1, 2018; Zembylas, Michalinos, “The affective dimension of far right rhetoric in the classroom: the promise of agonistic emotions and affects in countering extremism”,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vol. 42, no. 2, 2019; Zembylas, Michalinos, “The Affective Modes of Right-Wing Populism: Trump Pedagogy and Lessons for Democratic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vol. 39, 2020; Zembylas, Michalinos, “The affective atmospheres of democratic education: pedagog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challenging right-wing populism”,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vol. 43, no. 4, 2022; Leiviskä, Anniina and Iida Pyy, “The unproductiveness of political conflict in education: A Nussbaumian alternative to agonistic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55, 2021.

7) 윤정인,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헌법연구』, 제4권 제2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8) 장원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 『사회과수업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8.

9) 박상영, “한국의 포퓰리즘과 시민교육—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성의 ‘자유민주주의’ 기술 내용 분석”, 『시민교육연구』, 제55권 제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3.

10) 손준중, “적대주의에서 경합주의로: 민주적 교육을 위한 ‘정치적인 것’의 가능성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제25권 제4호, 안암교육학회, 2019.

주장한다. 다음으로 서구 학계에서 제시된 정서 교육의 두 가지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Ⅲ장). 우선, ‘희망의 비판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누스바움식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무폐식 경합적 접근방법을 대안적 방식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형된 접근방법의 시각에서 한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보이텔스바흐식 논쟁 수업 모형과 저자가 이를 참고해서 대학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수업 모형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Ⅳ장).

Ⅱ. 포퓰리즘: 이론과 현실

1.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적 성향의 시민 및 대중의 정서

현대 정치는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퓰리즘 역시 그러한 종류의 개념 중 하나이다. 태거트(Paul Taggart)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핵심가치가 부재하여 다른 이념들과 쉽게 결합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 포퓰리즘은 중심이 공허하며, 엘리트와 제도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기 때문에 혁명적이거나 반동적일 수 있으며, 좌익, 우익, 권위주의, 자유지상주의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포퓰리즘은 카멜레온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¹¹⁾ 포퓰리즘은 이처럼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정치 전략, 조직, 정치 스타일 등 여러 방식으로 개념적으로 규정되었다.¹²⁾ 그러나 포퓰리즘의 전세계적 유행을 이끌었던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포퓰리즘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은 포퓰리즘 연구의 ‘신주류’로 불리는 뮌데와 칼트바서가 제시한 ‘이념적 접근방법(ideational approach)’이다.¹³⁾

이념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 간의 근본적 대립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아이디어이다. 즉, 포퓰리즘은 사회가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면서 적대적인 집단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정치란 국민/인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이다.¹⁴⁾ 이러한 아이디어로부터 포퓰리

11) Taggart, Paul, “Populism and representative politics in contemporary Europe”,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 9, no. 3, 2004, p.275.

12) 김현준·서정민, “포퓰리즘 정치 개념 고찰: 문화적 접근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제4호, 한국정치학회, 2017, p.53.

13) 정동준, “한국 시민의 좌파 포퓰리즘 성향과 우파 포퓰리즘 성향 비교: 쟁점입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16권 제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 2023, p.11.

즘의 주된 특징이 되는 ‘반엘리트주의’와 ‘인민중심주의’가 나온다. 엘리트란 기성정치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기존의 정치인과 정당, 나아가 정치제도 자체를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기성 집단과 제도가 모두 부패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반엘리트주의와 대쌍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인민중심주의이다. 부패한 엘리트와 구분되는 순수한 민중이라는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의 뜻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특색을 지닌다.¹⁵⁾ 이런 두 가지 특징으로부터 ‘전일주의(monism)’나 ‘도덕주의(moralism)’와 같은 특징이 파생된다. 즉, 엘리트와 민중의 대립이란 세계관 속에서 민중과 엘리트는 모두 동질적 이해와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상정되며, 부패 대 순수함이라는 도덕적 차원에서 구분된다.¹⁶⁾

포퓰리즘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골간으로 해서 형성된 이데올로기이지만, 그 중심이 얇다.¹⁷⁾ 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로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경제체제나 좋은 정치체제 등과 같이 세계관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고유한 입장이 없다. 그 대신, 정치아젠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다루며, 이런 의미에서 “중심이 얇은(thin-centered)”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거의 항상 “숙주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등장하며, 이러한 결합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이게 된다.¹⁸⁾

이러한 특징을 지닌 포퓰리즘의 발생은 두 가지 측면 즉,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의 포퓰리즘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 포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은 기성 정당과 제도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민중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¹⁹⁾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포퓰리즘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한 사회에서 포퓰리즘은 확산되기 어렵다. 포퓰리즘 발생을 촉진하는 수요는 포퓰리스트적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다. 일반 대중은 단순히 위로부터의 포퓰리즘, 즉 공급 측면의 포퓰리즘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내재된 포퓰리즘 성향을 바탕으로 위로부터의 포퓰리즘에 적극적 지지를 표출하며, 이것이 포퓰리즘 확산에 기여한다.²⁰⁾

그런데 문제는 포퓰리스트적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포퓰리스트적 태도를 표출하는 계

14)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op. cit.*, pp.5-6.

15) 정동준, 2023, 앞의 논문, pp.11-12.

16)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op. cit.*, pp.7, 11.

17) *Ibid.*, p.6.

18) *Ibid.*, p.21.

19) *Ibid.* p.104.

20) 정동준, 2023, 앞의 논문, p.13.

기와 맥락이다. 시민들이 포퓰리스트적 성향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호킨스의 말처럼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휴면중인 우고 차베스나 세라 페일린이 있다.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있다.²¹⁾ 이에 대해 라클라우(Ernesto Laclau)는 정서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포퓰리즘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행동을 묘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주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포퓰리즘의 본질은 사회·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있지 않고,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든 이를 표현하는 특수한 양식(a particular mode of articulation)에 있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포퓰리즘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이 특수한 양식의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이 표현되는 양식의 주된 특징을 정서적 투자(affective investment)에서 찾는다. 포퓰리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막론하고, 어떤 포퓰리즘이든 그것의 작동에는 이에 참여하는 사회적 행위자가 포퓰리스트 실천에 정서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은 작동하지 않는다.²³⁾ 따라서 포퓰리스트적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위로부터의 포퓰리즘에 호응해서 포퓰리스트적 태도를 표출하는 주요한 계기와 맥락은 바로 정서의 형성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포퓰리즘을 형성하는 정서는 대개 부정적 성격과 긍정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우파 포퓰리즘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포퓰리즘은 일차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포퓰리스트 우파를 지지하는 대중의 정서는 공포와 불안에서 비롯된다. 이 정서들은 억눌린 수치심을 매개로 해서 ‘적’으로 인지되는 집단에 대한 분노와 원한, 그리고 혐오의 감정으로 변환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수치심과 부정적 감정을 안겨주는 사회적 정체성으로부터 정서적 거리를 두게 되고, 그 대신 더 안정적이고 배타적인 정체성으로 인지되는 사회적 정체성에 애착을 갖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적 정서는 포퓰리즘을 지탱한다.²⁴⁾

이런 부정적 정서를 동원하는 대표적 사례가 트럼프의 포퓰리즘이다. 트럼프의 정치적 지지자에게서 발견되는 근본적 감정은 ‘원한(ressentiment)’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자유주의적 엘리트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감정의 근간에는 존재론적 불안이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의 정치캠페

21)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op. cit.*, p.99.

22) Mårdh and Tryggvason, 2017, *op. cit.*, p.605.

23) *Ibid.*, p.606. 물론,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데 정서적 헌신과 투자가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심이 두꺼운 이데올로기’의 경우 세계관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에 바탕해서 정서적 헌신과 투자가 생겨난다면, 핵심가치가 부재한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인 포퓰리즘의 경우 정서적 헌신이 이데올로기 작동 과정에서 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24) Zembylas, 2020, *op. cit.*, p.156.

인은 이러한 대중들이 자신들의 부정적 정서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공포, 불안과 그로부터 변형될 수 있는 분노와 원한, 그리고 혐오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의 말과 행동으로 그의 선거운동은 채워진다. 그의 이런 말과 행동은 대중들로 하여금 감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²⁵⁾

하지만 포퓰리즘의 작동은 공포와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만 기반하고 있지 않다. 포퓰리즘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정서는 부정적 정서와 대비되는 긍정적 정서이기도 하다. 포퓰리즘이 부정적 정서를 토양으로 삼아 발동된다면, 포퓰리즘의 지속과 확산에는 대중이 가진 존재론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그들에게 해방과 구원감을 심어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극우 포퓰리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포퓰리즘의 동원양식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가진 부정적 정서에 호소하면서도 공동의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정서적 구원과 안식을 누리게 되며, 포퓰리즘에 더욱 호응하게 된다. 이처럼 극단의 포퓰리즘은 대중이 근대사회에서 갖게 되는 부정적 정서와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긍정적 정서에 호소하면서 현실세계에서 작동한다.²⁶⁾

이러한 정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에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엘리트에 의해 대표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집단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의 민주제의 책임성과 응답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²⁷⁾ 하지만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치와 입헌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다. 법치는 통치권력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권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포퓰리스트는 국민/인민의 뜻을 내세워 법치를 담당하는 제도를 탈취하거나 전유할 수도 있고, 그 경우 법치는 포퓰리스트 정부의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는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이 노골적인 형태를 띠 수도 있지만,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서도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다.²⁸⁾ 또한, 포퓰리즘은 ‘정치의 도덕화(moralization of politics)’를 심화시켜 정치적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²⁹⁾ 포퓰리즘은 이처럼 ‘자유 민주주의’에

25) *Ibid.*, p.156.

26) *Ibid.*, p.157.

27)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op. cit.*, p.83.

28) Lacey, Nicola, “Populism and the Rule of Law”,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 15, 2019. pp.87-88.

29)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op. cit.*, p.83. ‘정치의 도덕화’란 정치적 논쟁에서 시민들이 의견의 일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퓰리즘은 동질적인 “선한” 집단과 동질적인 “악한” 집단으로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도덕주의’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포퓰리즘은 ‘정치의 도덕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포퓰리즘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도덕적 프레임에 관해서는 Hunger, Sophia, “Virtuous people and ev

대한 교정책과 위협, 어느 쪽이든 될 수 있는데 그 운명은 한 사회가 처한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³⁰⁾

2. 한국의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얕은 중심의 이데올로기’로서 19세기 후반 아메리카와 러시아에서 발원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³¹⁾ 한국 역시 이러한 포퓰리즘의 유행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거나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명백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정권을 장악하지는 않았다.³²⁾ 즉, 포퓰리스트 성향을 가진 집단이 제도권 정당을 결성하여 정권을 잡을 정도로 정치세력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 포퓰리즘은 아직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와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옹호자들에게 영감”³³⁾을 준 사건으로 평가받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는 포퓰리즘의 모먼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추구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통치 행태가 포퓰리스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장집(2020)은 정권을 장악한 정치집단의 ‘운동 중심 민주주의관’이 ‘반정치적 정치’의 성격을 띠고, 이는 한국 정치에 포퓰리즘의 발생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³⁴⁾ 신기욱(shin 2020)은 이런 형태의 포퓰리즘이 라틴 아메리카의 좌파 포퓰리즘과 유사한 소비니즘적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으며,³⁵⁾ 이연호·임유진(2022)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차원에서 좌파 포퓰리스트적 성격

il elites? The role of moralizing frames and normative distinctions in identifying populist discourse”, *Political Research Exchange*, vol.6, no.1, 2024. <https://doi.org/10.1080/2474736X.2024.2370308>(검색일: 2024.07.19).

30)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op. cit.*, p.79.

31) 포퓰리즘 연구자의 다수는 포퓰리즘이 근대적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Ibid.*, p.21.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역사적으로 공존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원을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 포퓰리즘 연구는 주로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포퓰리즘이 배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구의 초점을 근대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2) 박선경,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한국의 포퓰리즘? 경제적 불평등 인식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포퓰리즘 성향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32권 제1호, 21세기정치학회, 2022, p.2.

33) 야스차 몽크 지음, 함규진 옮김, 『위험한 민주주의: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서울: 와이즈베리, 2018, p.239.

34) 최장집,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한국정치연구』 제29집 제2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020, p.16.

35) Shin, Gi-Wook, “South Korea’s Democratic Decay”, *Journal of Democracy*, vol. 31, no. 3, 2020, p.109.

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³⁶⁾ 한편, 차태서(2021)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통치술에 주목해서, 문재인 정부와 그의 정치적 지지세력이 검찰과 언론 “개혁”을 내세우면서 정치를 도덕화하고,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통치를 주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규범을 침식했다고 비판했다.³⁷⁾

윤석열 정부의 경우, 그 태생부터 포퓰리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조석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특수검사단의 일원으로서 “부패한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권력자를 처벌하는, 국민의 보편적 의지를 실현하는 검사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포퓰리스트적 속성을 지녔다. 그는 이런 이미지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통치술의 책임자로 발탁되어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면서 이런 이미지는 강화되었다.³⁸⁾ 그는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부패한 엘리트 집단을 처단하는 검사’라는 포퓰리스트적 이미지를 내세워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등장 배경에 포퓰리스트적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실제 통치행태는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과 달리 ‘거꾸로 선 포퓰리즘’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즉, 포퓰리즘이 일반적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계층을 끌어안는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그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아래가 바뀐 포퓰리즘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³⁹⁾

물론 탄핵 이후 두 정부에서 발견되는 포퓰리스트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국정치에서는 대중 동원을 위해 여야가 서로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포퓰리스트적 정치공세와 수사 및 전략이 동원되어 왔다.⁴⁰⁾ 따라서 포퓰리즘의 등장을 지적하는 연구가 정치담론에서 활용된 정치적 수사를 일부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포퓰리즘의 현상이 비교적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가까운 것에 그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와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⁴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6) 이연호·임유진,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populism)”, 『문화와 정치』, 제9권 제3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2.

37) 차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의 출현”, 『정치·정보연구』, 제24권 3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pp.154-159.

38) 조석주, “포퓰리즘과 테크노크라시: 윤석열 정부 평가”, 『정치와 공론』, 제33집, 한국정치평론학회, 2023, p.98.

39) 김주호 외,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과세계』, 42호, 참여사회연구소, 2023, p.131.

40) 도묘연, “포퓰리즘 성향의 한국 대중들은 어떠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한국정치연구』, 제31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p.184.

41) 포퓰리즘 전략을 사용했던 안철수의 ‘새정치’ 현상을 검토했던 조기숙은 그간 한국의 포퓰리즘이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조기숙, “안철수현상의 동인: 정당불신 혹은 정치냉소주의”, 『한국정

공급 차원에서 포퓰리즘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로부터의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위로부터의 포퓰리즘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현상은 수요 측면에서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수요 측면의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에 포퓰리즘적 성향을 지닌 시민이 존재하며, 그 성향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인을 가지고 포퓰리즘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이승원 외(2018)의 연구는 한국에도 포퓰리즘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확립되어 있음을 규명했다.⁴²⁾ 도묘연(2021)의 연구는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 여부에 영향력을 끼치는 변수임을 확인해서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⁴³⁾ 황인정 외(2022)의 연구도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투표와 집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규명했다.⁴⁴⁾

이러한 포퓰리스트적 성향은 이론상 시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하여 침체된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숙중(Lee 2021)은 한국의 경우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이 한국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⁴⁵⁾ 또한, 정동준(2023)은 한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시민의 좌파 포퓰리즘적 성향이 현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⁴⁶⁾ 다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위로부터의 포퓰리즘 모먼트는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과 맞물려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의 포퓰리스트적 성향과 그에 따른 정치참여적 경향이 향후에도 한국 민주주의에 순기능만을 할 것이라고 낙관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했던 팬덤정치는 위로부터의 동원이기보다는 포퓰리스트적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의 양상을 띠었다. 이 운동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치연구』 제24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42) 이승원 외,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인 분석: 포퓰리즘인가, 정치효능감인가”, OUGHTOPIA, 제33권 제3호, 2018, p.132.

43) 도묘연,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제30집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pp.119-120.

44) 황인정 외, “한국인이 바라보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평화학 연구』, 제23권 2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2, p.153.

45) Lee, Sook Jong, “South Korea's tamed populism: Popular protests from below and populist politics from the top”, In Lee, S. J., Wu, C., & Bandyopadhyay, K. K. (Eds.), *Populism in Asian democracies*, Leiden: Brill, 2021, p.37.

46) 정동준, 2023, 앞의 논문, p.43.

근거해서 정치적 적수를 완전한 배제와 멸절의 대상으로 규정했다.⁴⁷⁾

특히,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은 대중적 정서를 바탕으로 확립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팬덤정치는 “‘비극적 영웅’을 죽음으로 내몬 거악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원한”을 바탕으로 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적폐세력에 의한 타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원한의 정서가 “깨어있는 시민”의 집합정체성을 구축하고 집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⁴⁸⁾ 이처럼 한국의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은 대중의 특정한 정서를 동력으로 삼아 정치의 도덕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호응하여 위로부터의 포퓰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치의 사법화를 추진하고 있다.⁴⁹⁾ 이런 현상은 한국의 포퓰리즘이 더 이상 ‘길들여진 포퓰리즘(tamed populism)’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III. 시민교육에서 정서 문제의 접근방법

1. 누스바움과 ‘희망적 비판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포퓰리즘 작동에 주요한 요인은 정서적 차원이다. 현대사회의 포퓰리즘은 대중의 정서적 애착을 바탕으로 작동하며, 포퓰리스트들은 대중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호응하는 스타일의 언행을 통해 대중을 동원한다. 즉, 포퓰리즘은 ‘정서적 정치’를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작동 방식은 한국의 포퓰리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이 확립되는데 중요한 요인은 원한, 불안 등의 감정이었으며,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으로 좌우의 포퓰리스트 성향을 지닌 대중을 동원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긍정적 기능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민주주의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의 대전환기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불안과 공포의 정서를 동원하려는 포퓰리스트적 기획이 시민의 포퓰리스트적 태도와 정서를 민주주의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포퓰리즘이 ‘길들여

47) 차태서, 2021, 앞의 논문, pp.152-153.

48) 위의 논문, pp.150-151.

49)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우파의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이 위로부터의 포퓰리즘과 접합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 상태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안 중 하나는 대중의 정서적 차원을 고려한 시민교육이다.

포퓰리즘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시민교육에서 정서를 다루는 한 가지 접근방법은 '희망적 비판의식(hopeful criticism)'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는 포퓰리즘을 양산하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과 긍정의 감정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교육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원래 트럼피즘과 같은 극우 포퓰리즘의 '정서적 정치'에 맞서기 위한 '정서적 대항정치(affective counterpolitics)'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 이 접근방법에 따르면, 극우 포퓰리즘의 정서적 정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극우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포퓰리즘의 정서적 정치가 대중의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에 모두 호소한다면, 시민교육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소극적 비판에 그쳐선 안 되며,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적극적 비판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교육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에 관한 긍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즉, 교육의 목적이 '잔인한 낙관주의'에서 '현재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⁵¹⁾

시민교육에서 이러한 대안적 정서 함양을 강조하는 입장은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교육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두려움의 군주제』⁵²⁾에서 두려움을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으로, “곧 닥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일에 대한 괴로움과 이를 물리칠 힘이 없다는 무력감의 결합”으로 이해한다.⁵³⁾ 즉, 나쁜 일이 일어날거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타자에 대한 분노와 혐오의 감정으로 전염되며, 이는 자연발생적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타인을 위협으로 느끼며, 더 나아가 그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분노가 뒤따른다.⁵⁴⁾ 또한, 인간은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혐오를 느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투사적 혐오를 조작해 타인에게 혐오를 발산한다.⁵⁵⁾

50) Zemblyas, 2020, *op. cit.*, p.162.

51) Hodgson, Naomi, and Joris Vlieghe, eds., *Manifesto for a Post-Critical Pedagogy*, Earth, Milky Way: Punctum Books, 2017, p.18.

52) 한국 번역본은 『타인에 대한 연민: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53) 마사 누스바움 지음, 임현경 옮김, 『타인에 대한 연민: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0, p.55.

54) 위의 책, pp.104-105.

55) 위의 책, p.154.

극우 포퓰리즘은 바로 이러한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대중을 동원하는데, 누스바움은 이에 맞서기 위해선 희망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희망이란 감정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희망은 가능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무력감을 동반하며, 이런 점에서 희망은 두려움의 사촌 또는 뒷면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감정은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 즉, 불확실성과 무기력함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나 희망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선다.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희망은 전진하는데 반해, 두려움은 물러선다. 희망은 취약함을 감수하지만, 두려움은 자기방어적이다.⁵⁶⁾ 누스바움은 사람들이 불확실성과 무기력함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이 발생하는 요인은 집중의 대상 또는 시각의 차이이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쁜 결과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발생하고, 좋은 결과에 집중하면 희망이 생겨난다. 따라서 사람들은 시선을 돌려 희망의 감정을 가져야 한다.⁵⁷⁾

누스바움은 이런 희망의 감정을 심어주기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 대의명분을 위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을 제안한다. 특히, 풀뿌리 조직이 중심이 되는 정의를 위한 운동이 두려움을 무찌르고 희망을 키우는 지속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⁵⁸⁾ 그러나 '희망적 비판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시민교육에 정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극단적 포퓰리즘에 동원되는 정서가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을 의도치 않게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두려움의 정서에 맞서기 위해 희망을 대안적 감정으로 제시했지만, 현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을 지탱하는 감정은 단순히 두려움이란 부정적 감정만이 아니라 그와 동전의 양면인 희망의 감정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의 포퓰리즘을 추동하는 정서적 동인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감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희망의 감정을 배우고 습득하는 교육은 자칫하면 극단적 포퓰리즘의 정서적 자원을 배양하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이미 좌파와 우파의 포퓰리스트적 성향을 지닌 시민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임을 고려하면, 대안적 정서를 함양하는 교육 자체가 피교육자의 감정과 이에 근간한 정서적 애착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⁵⁹⁾ 즉, 대안적 감정을 고취시키려는 시

56) 위의 책, pp.252-253, 261.

57) 위의 책, pp.255-257.

58) 위의 책, pp.284-285.

59) 정동준에 따르면, 한국인의 포퓰리즘 성향은 우파보다는 좌파 집단에 좀 더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파 포퓰리즘이 큰 세력으로 성장할 경우 반다원주의와의 연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

민교육은 이미 포퓰리스트적 태도와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극단적 포퓰리즘의 등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대안적 교육이 사회의 적대적 정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⁶⁰⁾

2. 상탈 무폐와 경합적 교육: 경합적 감정의 인정과 공통 정서의 함양

‘희망의 비판의식’을 고양시키려는 교육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서 교육의 방법은 상탈 무폐식 경합주의(agonism)에 입각한 교육이다. 무폐에 따르면, 인간의 “집단적 동일시 욕구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집단적 동일시는 “우리”의 개념 정의에 항상 “그들”을 포함시키킨다. 따라서 정치에는 항상 ‘당파적’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⁶¹⁾ 그러나 합리주의적 접근에 입각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이 경합주의를 고려하지 못했다. 기존 이론과 실천은 합리적 의사소통에 근거한 이성적 합의만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배출할 수 있는 경합적 통로(agonistic channels)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젊은이들의 극단적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극단적 적대주의(antagonism)가 성립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따라서 집단적 동일시의 경향을 인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생겨나는 갈등을 경합적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²⁾ 또한, 이러한 정치적 경합 과정에서 감정은 공적 영역에서 제거될 수 없다. 무폐는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실수가 집단적 동일시가 동원하는 정서적 차원을 간과한 데 있다고 본다. 그들은 개인주의의 발전과 합리성이 진보함에 따라 이른바 고루한 열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집단적 동일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감정은 경합성과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³⁾

루이텐버그(Claudia W. Ruitenberg)는 무폐의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시민들을 ‘정치적 경쟁자’로 키우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시민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경쟁자’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⁶⁴⁾ 물론, 이 교육에는 감정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루이텐버그의 입장을

정동준, 2023, 앞의 책, pp.43-44.

60) Zembylas, 2019, *op. cit.*, pp.269, 279.

61) Mouffe, Chantal, *On the Political*,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5, p.28; Ruitenberg, Claudia. W., “Educating political adversaries: Chantal Mouffe and radica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vol. 28, no. 3, 2009, p.272.

62) *Ibid.*, pp.272-273.

63) Mouffe, 2005, *op. cit.*, pp.6, 24; Ruitenberg, 2009, *op. cit.*, p.273; Mihai, 2014, *op. cit.*, p.31.

발전시킨 켈빌라스는 심의 민주주의론의 접근방식을 채택한 기존 시민교육론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의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경합적 교육 방식은 도덕과 정치의 구분을 학습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교육자들은 도덕적 분노와 정치적 분노가 그 성격상 다르다는 것을 배우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감정을 학습해야 한다.⁶⁵⁾ 켈빌라스는 이를 위해 감정의 경합적 측면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경쟁자’로서 대립은 이념적 차원뿐만 아니라 감정적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지닌 감정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다양한 감정이 표현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⁶⁶⁾

경합적 교육을 정서적 측면에 적용할 때, 교육기관의 민주적 의무는 ‘정치적 경쟁자’들이 자신의 정서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교실에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토론이 민주적 틀 속에서 진행된다는 조건 하에서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자’들은 정치적으로 관련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⁶⁷⁾ 켈빌라스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누스바움식 접근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누스바움은 ‘고귀한’ 정치적 감정을 고양함으로써 극단적 포퓰리즘을 양산하는 부정적 감정 즉, 두려움, 염려, 분노, 수치 등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대중의 정서적 애착을 과소평가하고,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복잡함을 무시하고 있다.⁶⁸⁾ 즉, 정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순화된 접근은 의도와 달리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경합적 교육론은 경합적 감정을 상호 인정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감정과 구분되는 정치적 감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경합적 교육론 역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켈빌라스의 경합적 교육론에 따르면, 정서의 경합적 측면을 인정하여 교실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모두 논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각 이데올로기를 추동하는 감정적 차원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⁶⁹⁾ 그러나 누스바움식 교육 방법을 옹호하는 연

64) Ruitenberg, 2009, *op. cit.*, p.275.

65) Zembylas, 2019, *op. cit.*, pp.273-274.

66) *Ibid.*, p.276.

67) *Ibid.*, p.276.

68) *Ibid.*, p.276.

69) *Ibid.*, p.277.

구자들이 지적하듯이, 경합적 교육을 통해 함양되는 경합적 정치 감정은 갈등을 완화하거나 승화시키기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창출하거나 또는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⁷⁰⁾ 켈블라스는 경합적 측면을 인정하면 각자가 가진 감정을 배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감정과 정치적 감정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이 아무리 도덕적 감정과 정치적 감정을 구분하도록 설계되더라도, 현실에서 두 감정의 경계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교실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있는 집단은 명목상 정치적 감정의 경계를 지킬지라도, 경쟁 과정에서 고양된 감정은 현실에서 손쉽게 도덕적 감정과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경합적 교육론이 강조해야 하는 측면은 정치적 감정의 경합적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의 측면이다. 경합적 교육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필연적으로 경합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 속에서 공통의 감정을 발견하거나 함양하는 데 두어야 하며, 이 공통의 감정 속에 희망의 정서도 포함시켜야 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정치감정은 ‘도덕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갖춘 공통의 일련의 규범적 목적’에 기초해야 한다.⁷¹⁾ 그러나 공통의 규범적 목적에 대한 해석과 그 실현방식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경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합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우리’와 ‘그들’이라는 집단 속에서 공통성을 발견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감정을 경합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통성의 실체는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평등한 시민으로서 집단적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이란 측면에서 ‘우리’와 ‘그들’로 서로 다투는 경합적 집단은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경합적 교육은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정서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공통의 정서 함양을 추구하는 시민교육의 구체적 방법은 경합적 교육 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경합적 교육 과정 자체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정치공동체의 일원임을 체험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 집단적 결정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교육의 참가자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희망적인 공통의 정서를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과정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정서적 분위기이다. 정서 함양에서 간과될 수 없는 요소는 시민교육의 환경이 조성하는 정서적 분위기에 있다. 감정의 습득은 단순히 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시민교육에 참여하는 환경 자체가 자아내는 정서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70) Leiviskä, Anniina and Iida Pyy, 2021, *op. cit.*, p.581.

71) *Ibid.*, p.583.

때문이다.

IV. 공통 정서 함양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의 보이텔스바흐 수업 모형

1.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한국의 시민교육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공통의 정서 습득에 초점을 둔 경합적 교육론(이하 ‘변형된 경합적 교육론’)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시민교육 현장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의거한 수업 모형을 검토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란 1976년 11월 보이텔스바흐에서 열린 정치교육토론회에서 암묵적으로 도달한 ‘정치교육의 합의’이다. 당시 독일의 정치교육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있었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이념적 세계관을 정치교육에 반영하려 했고, 정치교육은 당파 정치와 이데올로기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좌파, 중도좌파, 우파, 중도우파, 중도파를 대변하는 이질적 정치교육 이론가들이 모여 정치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는 훗날 보이텔스바흐 합의로 불리게 되었다.⁷²⁾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강압금지 원칙’은 ‘올바른 견해’라는 명목으로 학생에게 특정 견해를 강요하는 의식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학생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훈육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고, 주체적 인지와 사유 능력을 가진 주체로 대우하자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논쟁성 원칙’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학교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강압금지’ 원칙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만약 사회에서 논쟁적 이슈가 교실에서 배제된다면 학생들은 선택과 대안적 사유의 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특정 이념을 의식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았다. 셋째 ‘학습자 이익 상관성 원칙’은 학생들이 정치적 쟁점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할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과정에서 안내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교육이 학습자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위 가능성과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 참여 역량 또는 행위 역량 원칙이라고도 불린다.⁷³⁾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9년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준비했던 지그프리트 쉘레(Siegfried Schiele)

72) 심성보 외,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북멘토, 2019, pp.45-55.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정치적 맥락과 진행 과정에 대해선 심성보 외(2018)의 제1장 1절과 2절 참고.

73) 위의 책, pp.64-66.

와 헤르베르트 슈나이더(Herbert Schneider)가 편집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를 출판했다. 201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의거한 교육 방법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인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결성한 보이텔스바흐 수업연구회이다.

보이텔스바흐 수업연구회는 인천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연구모임이다. 이 연구회가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른 교육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통일 후 교육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남북의 이질적 체제가 통일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한스자이텔재단 초청으로 구 동독지역 연방정치교육원과 뒤링엔주정치교육원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알게 되었고, 시민교육의 목표는 각 학생이 주도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고, 논쟁적 관점을 유지한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행위역량을 기르는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이 연구회는 2018년 한국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보이텔스바흐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2년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가 2020년 출판된 『보이텔스바흐 수업: 참여와 실천을 배우는 논쟁학습』에 수록되었다.⁷⁴⁾

2. 보이텔스바흐 수업연구회의 수업 모형 검토

이 연구회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보이텔스바흐 수업 모형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6단계 수업 모형의 흐름은 다음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른 논쟁 수업 모형 흐름도

과 정	내 용
① 상황 던지기	· 교사가 논쟁 배경 안내 · 논제 정하기 · 학생이 배경지식 스스로 찾기
② 쟁점 찾기	· 다양한 관점 찾아 내용 정리하기 · 찬반 선택 시 이해관계 분석하기
③ 입장 드러내기	· 나의 관점 정하기 · 입장과 근거 정리하기

74) 보이텔스바흐 수업연구회, 『(교실에서 시작하는 시민교육) 보이텔스바흐 수업: 참여와 실천을 배우는 논쟁학습』, 서울: 학교도서관저널, 2020, pp.8-9.

과 정	내 용
④ 논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제시 순서: 찬성 측 — 반대 측 · 질문 또는 반박하기 순서: 반대 측 — 찬성 측 ·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하기
⑤ 최종 입장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에서 정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부여하기 · 자신의 입장 굳히기
⑥ 실천 의지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다양한 생활 장면에 적용하기

보이텔스바흐 수업연구회(2020, 21)에서 재인용

이 수업 모형을 변형된 경합적 교육론의 문제의식에서 살펴볼 때,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번째 원칙 ‘학습자 이익 상관성 원칙’을 개인의 이해관계로 해석해서 반영하고 있는 접근이 극단적 포퓰리즘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적대 정서의 심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원칙과 연관된 항목은 ② 쟁점 찾기의 ‘찬반 선택 시 이해관계 분석하기’와 ④ 논쟁하기의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하기” 그리고 ⑥ 실천 의지 다지기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다양한 생활 장면에 적용하기”이다. 이 세 항목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학습자 이익 상관성 원칙’에 따라 논쟁적 사안이 각 학생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치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정치참여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극단적 포퓰리즘의 등장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치적 쟁점에 관한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정치행위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접근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사회에 잠재하는 적대적 감정과 태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모델을 적용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된다. 중등 교과 수업 사례인 「난민 수용! 찬성 vs. 반대」에서 반대 측은 난민 수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검토한 후, 최종 실천 의지 다지기 차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난민 반대를 지지하는 온라인 신문기사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⁷⁵⁾ 물론, 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는 난민 수용 이슈에서 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제주도 난민 관련 온라인 기사에 달린 반대 댓글의 상당수에 혐오의 감정이 직설적으로 표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실천 의지 다지기’는 이러한 혐오의 감정에 전염될 수 있

75) 위의 책, p.125.

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원칙은 슈나이더가 제안한 대로 이해관계의 의미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특히 ‘일반적인 전체에 대한 공동책임’이란 관점 즉, ‘부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이것을 포괄하는 정치적 결사체에 대한 공동책임’이란 시각(76)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관계’를 이렇게 정치적 결사체의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논쟁적 교육을 통해 공통의 정서를 심어주고자 하는 접근 방식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변형된 경합적 교육론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은 감정의 차원이 이 수업 모형에선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 모형은 전통적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합리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논쟁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참여가 정서에 영향을 받으며, 공통의 정서 습득이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란 점을 고려하면, 논쟁 수업 모형의 ③ 입장 드러내기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단순히 쟁점에 대한 주장뿐만 아니라 그에 동반되는 감정 역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④ 논쟁하기 단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질문과 반론을 제기할 때 상대의 감정에 관해서도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최종 입장 정하기 단계는 논쟁을 거친 이후 자신의 입장을 굳히는 과정이다. 그러나 변형된 경합적 교육론의 관점에서 보면, 논쟁을 통해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자신의 생각과 경합하는 다른 견해와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5단계에서는 상대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감정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여전히 생각이 다른 부분을 참여자들이 정리하고 이를 발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⑥ ‘실천 의지 다지기’ 역시 수정하여 학생들이 논쟁적 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이 받은 느낌과 인상을 교환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업 모형을 수정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수정된 논쟁 수업 흐름도

과 정	내 용
① 상황 던지기	· 교사가 논쟁 배경 안내 · 논제 정하기 · 학생이 배경지식 스스로 찾기
② 쟁점 찾기	· 다양한 관점 찾아 내용 정리하기 · 찬반 선택 시 개인적 이해관계와 <u>공동 책임</u> 분석하기

76) 허영식,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한 담론과 합의”,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11권 제4호,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8, pp.32-33.

과 정	내 용
③ 입장 드러내기	· 나의 관점 정하기 · 입장과 이에 관한 감정 그리고 근거 정리하기
④ 논쟁하기	· 논의 제시 순서: 찬성 측 — 반대 측 · 입장, 감정, 근거에 대해 질문하기 순서: 반대 측 — 찬성 측 · 입장, 감정, 근거에 대해 반대하기 순서: 반대 측 — 찬성 측
⑤ 최종 입장 발표	· 상대의 입장, 감정, 근거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의 정리와 발표
⑥ 토론의 종합	· 교사가 토론의 의미에 대한 설명

3. 저자의 대학 강의에서 사용한 논쟁 수업 모형 검토

보이텔스바흐 연구회의 논쟁 수업 모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저자는 이 모형을 참조하면서 공통 정서의 함양을 목표로 포함시킨 논쟁 수업 모형을 다음 <표 3>와 같이 개발하여 ○○대학교 「현대정치이론」과 「정치이론세미나」 수업에서 사용했다. 2022년 2학기과 2023년 2학기 「현대정치이론」 수업에서는 “청년 간병인에 대한 재판결과는 정당한가, 부당한가?”라는 주제로, 2023년 1학기과 2024년 1학기 「정치이론세미나」에서는 “쿠르드족에게는 독립의 권리가 있는가?”, “청년에 대한 사회의 지원은 모든 개인에게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도덕적 특질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국가인가, 민족인가?)”, “한국사회는 법으로 도덕을 강제해야 하는가?(간통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쟁 수업을 진행했다.

<표 3> 대학 강의에서 사용한 논쟁 수업 모형 흐름도

과 정	내 용
① 경합적 개념의 제시	· 교수자가 경합적 개념을 둘러싼 이론에 대한 강의
② 쟁점의 제시	· 경합적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한국의 논쟁적 사례에서 논제 제시 · 학생의 입장 결정 및 근거 정리
③ 토론에 관한 설명	· 토론의 목적과 절차에 관한 교수자의 소개와 안내

과 정	내 용
④ 소그룹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입장의 소그룹과 반대 입장의 소그룹으로 편성 · 찬성/반대 입장의 '근거'와 '주장'에 대해 소그룹에서 의견 교환 · 소그룹 내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결정
⑤ 대그룹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입장의 대그룹과 반대 입장의 대그룹으로 재편성 · 소그룹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발표와 상호 의견 교환 · 대그룹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결정
⑥ 전체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과 반대의 입장(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발표 · 상호 의견 교환: 상대편 입장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한 질문과 반대 의견 · 찬반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서 상대 측 의견에 대한 입장 정리 · 찬반 그룹의 최종 입장(동의와 부동의) 발표
⑦ 토론의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과정의 의미에 대한 교수자의 설명

이 논쟁 수업은 2주차에 걸쳐서 진행되도록 구성되었다. 1주차에 ①에서 ②단계를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단계는 2주차에 진행했다. ①단계는 '본질적으로 경합적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범 이론을 이해하는 강의 전반의 목적을 반영하여, 자유, 민족, 주권 등과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소개했다. ②단계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적용될 수 있는 한국 사례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1주차에서 2주차 사이에 각자 찬반 입장을 결정해서 논거를 정리하도록 했다. ③단계는 2주차에 진행되었으며, 우선 이 토론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의 목적이 찬반으로 나뉘어 상대편을 논박하고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쟁적 사안에 대해 자신과 상대방 견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서로의 견해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 상대방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④와 ⑤단계에서는 찬성 그룹과 반대 그룹으로 나뉘어 쟁점에 대해 표면상 같은 입장인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했다. 우선, 4~5명으로 소그룹을 편성하여 각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의 근거와 이에 기반한 구체적 주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고민하여 토론의 마지막에 다수결 원리에 따라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 후 찬성 측 학생과 반대 측 학생이 각각 대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에서 논의된 의견을 같은 방식으로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대그룹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결정하도록 했다. ⑥단계에서는 찬반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대그룹 토론에서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질문과 반론을 하도록 했다. 그 후 학생들은 찬반 그룹으로 다시 나뉘어 상대방 주장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였고, 이 내용을 최종 입장으로 발표했다. ⑦단계에서는 교수자가 전체 토론을 정리하면서 토론 과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의 논쟁 수업이 기존의 토론 수업과 다른 점은 찬반 그룹이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찬성 그룹 내부의 의견도 논쟁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개 찬반으로 나뉘지는 토론의 경우, 상대방을 얼마나 잘 논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 그룹의 의견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것이 되도록 사실상 강요된다.⁷⁷⁾ 그러나 논쟁적 쟁점에 관한 입장의 논거는 다양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 결과 실제 찬성이나 반대 입장 자체도 각론에서 다양해질 수 있다. 이 논쟁 수업 모형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논쟁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토론 과정이 상대방을 논박하여 승리하는데 있지 않고, 정치적 입장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에서 동의와 부동의하는 지점을 확인하는데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이 변형된 경합적 교육 방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업 모형은 변형된 경합적 교육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확인된다. 첫째,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치의 측면이다. 이 수업 모형은 공통 정서의 함양을 위해 ③과 ⑦의 단계에서 토론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이 목적과 의미를 단순히 구두로 설명했을 뿐이다. 이 토론의 목적과 의미가 정서 함양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영상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통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시민교육의 이론을 구축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도 참여해 온 파머(Parker J. Palmer)는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한국어 번역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이러한 정서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책의 토론 가이드 소책자(*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DISCUSSION GUIDE)

77) 예를 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의 대학생부 논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하는가?”이고, 토론 방식은 ① 찬성팀 시작 발언, ② 반대팀 시작 발언, ③ 자유토론, ④ 반대팀 마무리 발언, ⑤ 찬성팀 마무리 발언이며, 토론 후 심사위원단이 승리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선 https://www.debates.go.kr/2018_debate/debate_info.php(검색일: 2024.07.19).

와 이 책과 관련된 온라인 자료들 역시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적 맥락에 맞는 자료들을 제작하여 ③과 ⑦단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⑦단계에서는 단순히 교수자가 토론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발견한 공통 정서와 희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토론의 과정 자체가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론의 종결 이후 각자가 느낀 바를 서로 교환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개발된 보이텔스바흐식 논쟁 수업 모형에서도 지적인 것처럼, ④에서 ⑥단계에서 단순히 주장과 논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감정의 문제 역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21세기 현재,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는 포퓰리즘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 현상이 단기적이고 일회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보편적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투쟁이 끝났고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사회, 경제, 정치 등 어떤 종류의 모순이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구조이며, 이러한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느 사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⁷⁸⁾

하지만 현재 세계 각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기능장애를 겪고 있으며, 그 증상은 포퓰리즘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한국의 포퓰리즘이 ‘길들여진’ 성질의 것이었다면, 이러한 상태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한국의 아래로부터의 포퓰리즘에서는 정치의 도덕화가, 위로부터의 포퓰리즘에서는 법치를 권력정치적 맥락에서 전유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며, 이는 한국의 포퓰리즘이 장래에 ‘길들여진’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중의 정서적 차원을 고려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정서적 애착을 바탕으로 작동하며, 이 정서는 정치에

78)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No. 16, 1989.

서 사라질 수 없다. 따라서 포퓰리즘의 극단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서를 '길들여야' 하며, 그 방안으로 공통 정서의 함양을 염두에 둔 경합적 교육론을 제시했다. 이 접근방법은 정서적 애착을 과소평가하는 누스바움식 교육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 정서의 경합적 측면을 인정하는 동시에, 경합적 정서를 인정하는 교육이 촉발할 수 있는 감정의 고양과 전염을 완화하고, '정치적 경쟁자'로서 시민의 경합이 민주적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공통 정서의 함양을 추구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 방법에 입각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보이텔스바흐 수업연구회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른 논쟁 수업 모형과 이를 참고해서 저자가 대학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논쟁 수업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공통 정서의 함양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안했다. 향후 이런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수업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효과를 실제 분석하는 경험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실제 논쟁 수업을 진행할 경우, 논쟁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교육을 거치면서 공통 정서의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업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추가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주호 외,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과세계』, 42호, 참여사회연구소, 2023.
- 김현준·서정민, “포퓰리즘 정치 개념 고찰: 문화적 접근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제4호, 한국정치학회, 2017.
- 도묘연,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제30집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 _____, “포퓰리즘 성향의 한국 대중들은 어떠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한국정치연구』, 제31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 마사 누스바움 지음, 임현경 옮김, 『타인에 대한 연민: 혐오의 시대를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0 [Nussbaum, Martha C., *The Monarchy of Fear: A Philosopher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New York: Simon & Schuster, 2018].
- 박상영, “한국의 포퓰리즘과 시민교육—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기술 내용 분석”, 『시민교육연구』, 제55권 제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3.
- 박선경,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한국의 포퓰리즘? 경제적 불평등 인식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포퓰리즘 성향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32권 제1호, 21세기정치학회, 2022.
- 보이텔스바흐 수업연구회, 『(교실에서 시작하는 시민교육) 보이텔스바흐 수업: 참여와 실천을 배우는 논쟁학습』, 서울: 학교도서관저널, 2020.

- 손준중, “적대주의에서 경합주의로 민주적 교육을 위한 ‘정치적인 것’의 가능성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제25권 제4호, 안암교육학회, 2019.
- 심정보 외,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북멘토, 2019.
- 야스차 몽크 지음, 함규진 옮김, 『위험한 민주주의: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서울: 와이즈베리, 2018.
- 윤정인,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헌법연구』, 제4권 제2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 이승원 외,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인 분석: 포퓰리즘인가, 정치효능감인가”, OUGHTOPIA, 제33권 제3호, 2018.
- 이연호·임유진, “문제인 정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populism)”, 『문화와 정치』, 제9권 제3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2.
- 장원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교육”, 『사회과수업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18.
- 정동준, “한국 시민의 좌파 포퓰리즘 성향과 우파 포퓰리즘 성향 비교: 쟁점입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16권 제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 2023.
- 조기숙, “안철수현상의 동인: 정당불신 혹은 정치냉소주의”,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 조석주, “포퓰리즘과 테크노크라시: 윤석열 정부 평가”, 『정치와 공론』, 제33집, 한국정치평론학회, 2023.
- 지그프리트 쉐레, 헤르베르트 슈나이더 편,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하가?』,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 차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의 출현”, 『정치·정보연구』, 제24권 3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 최장집,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한국정치연구』 제29집 제2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020.
- 황인정 외, “한국인이 바라보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평화학 연구』 제23권 2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2.
- 허영식,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한 담론과 합의”,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11권 제4호,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8.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No. 16, 1989.
- Hodgson, Naomi, and Joris Vlieghe, eds., *Manifesto for a Post-Critical Pedagogy*, Earth, Milky Way: Punctum Books, 2017.
- Hunger, Sophia, “Virtuous people and evil elites? The role of moralizing frames and normative distinctions in identifying populist discourse”, *Political Research Exchange*, vol.6, no.1, 2024. <https://doi.org/10.1080/2474736X.2024.2370308>(검색일: 2024.07.19).
- Kinnvall, Catarina, 2018. “Ontological insecurities and postcolonial imaginaries: The emotional appeal of populism”, *Humanity & Society*, vol. 42, no. 4, 2018.
- Lacey, Nicola, “Populism and the Rule of Law”,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 15, 2019.
- Lee, Sook Jong, “South Korea's tamed populism: Popular protests from below and populist politics

- from the top”, In Lee, S. J., Wu, C., & Bandyopadhyay, K. K. (Eds.), *Populism in Asian democracies*, Leiden: Brill, 2021.
- Leiviskä, Anniina and Iida Pyy, “The unproductiveness of political conflict in education: A Nussbaumian alternative to agonistic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55, 2021.
- Mårdh, Andreas and Ásgeir Tryggvason, “Democratic Education in the Mode of Populism”,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vol. 36, 2017.
- Mihai, Mihaela, “Theorizing Agonistic Emotions”, *Parallax*, vol. 20, no 2, 2014.
- Mouffe, Chantal, *On the Political*,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5.
-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Popu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Palmer, Parker J.,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11.
- Ruitenbergh, Claudia. W., “Educating political adversaries: Chantal Mouffe and radica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vol. 28, no. 3, 2009.
- Shin, Gi-Wook, “South Korea’s Democratic Decay”, *Journal of Democracy*, vol. 31, no. 3, 2020.
- Taggart, Paul, “Populism and representative politics in contemporary Europe”,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 9, no. 3, 2004.
- Wahl-Jorgensen, Karin, “Media coverage of shifting emotional regimes: Donald Trump's angry populism,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 40, no 5, 2018.
- Wodak, Ruth, *The politics of fear: What right-wing populist discourses mean*, London: Sage, 2015.
- Zembylas, Michalinos, “Political Emotions in the Classroom: How Affective Citizenship Education Illuminates the Debate Between Agonists and Deliberators”, *Democracy & Education*, vol. 26, no 1, 2018.
- _____, “The affective dimension of far right rhetoric in the classroom: the promise of agonistic emotions and affects in countering extremism”,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vol. 42, no. 2, 2019.
- _____, “The Affective Modes of Right-Wing Populism: Trump Pedagogy and Lessons for Democratic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vol. 39, 2020.
- _____, “The affective atmospheres of democratic education: pedagog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challenging right-wing populism”,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vol. 43, no. 4, 2022.

【Abstract】

Civic Education in the Age of Populism
: Agonistic Approach to Civic Education and ‘Common Affection’

Kim, Hyun

This paper seek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populism in South Korea and propose an alternative approach to civic education, along with specific classroom debate models, to prevent the rise of extreme populism in the future. Liberal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are currently facing dysfunction, with the rise of populism serving as one of its key symptoms, and South Korea is not immune to this phenomenon. In response, this study advocates for civic educ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emotional dimension of the people. Specifically, it presents an agonistic educational approach that recognizes competing sentiments while fostering common affection to help ‘tame’ public sentiments. This paper also conducts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bate model developed by the Beutelsbach Study Group for use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as the debate model adapted by the author for university-level instruction, and proposes refinements to enhance these educational strategies.

Key Words : populism, civic education, agonistic educational approach, common affection

• 논문투고일 : 2024년 7월 2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18일